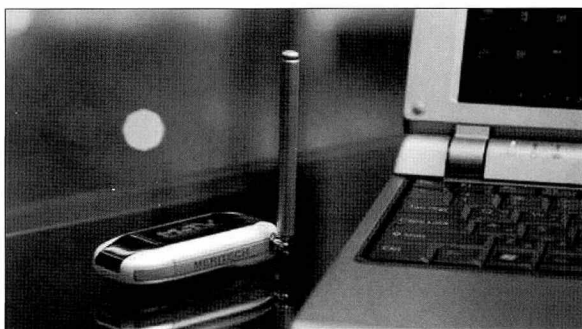


위성/지상파DMB 단말 · 부품 개발현황 ① 지상파 단말현황

본방송 앞두고 업체간 시장 쟁탈전 '치열'

글 | 임일곤 기자(아이티타임스)



오는 12월 지상파 DMB 본 방송 개시를 앞두고 DMB 수신기를 장착한 소형 디지털기기의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지상파 DMB수신기는 전용단말기를 비롯해 DMB 수신기능을 탑재한 휴대폰 및 노트북과 차량용 단말기 · PMP · USB형 수신기 등 다양한 형태로 출시되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 · LG · 팬택계열 등 대기업들이 들고 다니며 TV방송을 볼 수 있는 DMB 휴대폰에 주력하는데 반해, 중소기업들은 전용 단말기를 비롯해 차량용 단말기 · USB 수신형 등 아이디어 제품으로 승부수를 띄우고 있다.

◆ 휴대폰 업체들 DMB 휴대폰, 속속 공개

삼성전자 · LG전자 · 팬택계열 등 대기업들은 12월로 다가오는 지상파 DMB 개시일에 맞춰 DMB 수신기능의 휴대폰으로 포문을 열었다.

삼성전자(대표 윤종용)는 지난 '한국전자전 2005'에서 '스윙형 지상파DMB폰'을 일반인들에게 공개했다. 이 제품의 특

징은 휴대폰의 LCD화면이 180도까지 돌아가는 독특한 디자인으로 한 손으로 휴대폰 LCD부분을 살짝 돌리면 액정이 부채처럼 돌아가서 열리는 스윙형 디자인. 휴대폰 액정을 180도로 돌리면 슬라이드폰 모양으로, 90도 방향으로 고정시키면 삼성전자 1차 위성DMB폰(SCH-B100:가로보기 첫 모델) 모양으로 전환되는 복합적인 디자인 컨셉을 적용시켜 전화통화를 할 때나 DMB 감상을 할 때 편리성을 더했다.

LG전자(대표 김쌍수)는 지상파DMB 휴대폰(모델명 LG-LD1200)을 출시할 예정이다. 'LG-LD1200'은 200만화소 카메라, MP3기능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능과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강화했다. 또 한손으로도 시청이 가능한 'T' 스타일의 디자인을 채택, TV시청의 편의성을 강조했다. LG전자가 자체 개발한 지상파 디지털TV 수신칩을 내장해 국내 최장 시간인 3시간 30분간 TV를 시청할 수 있다.

팬택계열(대표 박병엽)은 내장 지상파 안테나를 채택한 컴팩트 슬라이드형 지상파 DMB폰 시리즈 2종을 연말에 선보일 예정이다.

이 제품들은 방송 수신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방송수신용 지상파 안테나를 채택하고 102×51×23mm 크기의 컴팩트한 디자인을 채택해 휴대의 편리성을 높였다.

브이케이(대표 이철상)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의뢰로 지상파 DMB 단말기 개발을 완료했다.

브이케이가 선보일 지상파 DMB폰은 QVGA급 해상도를 자랑하는 2.2인치 LCD를 장착해 고화질의 영상 시청이 가능하다.

◆중소업체, '다양성' 맞춰 속속 참여

기존의 디지털 기기를 제조하던 중소기업들도 12월 지상파 DMB 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앞다퉈 신제품들을 내놓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자사 기술력을 총동원해 대기업들과 가격과 기능면에서 차별화를 이루고 있다.

▲ 차량용 DMB 수신기= 현재 차량용 수신기를 개발, 판매 중인 것으로 알려진 업체는 지티전자, 비전포유, 이피루스, 퍼스텔, 디지털피아, 현대오토넷, 현대테크노, 노바일렉트로닉, 원텍인터내셔널 등이다.

지티전자(대표 박근모)는 차량용 지상파 DMB수신기 일체형 DMB수신기 등을 내놓았다.

지티전자의 차량용 지상파 DMB수신기(NDT-H1004)는 DMB 규격에 충실한 최적의 재생 기능을 제공한 제품으로, 하드웨어 방식의 비디오 및 오디오 원 칩 디코더를 적용했으며, H.264 비디오 디코더 기술도 탑재돼 있다.

비전포유(대표 노유학)에서는 차량용 지상파 DMB수신기 DMBMAN VST-1000을 출시했다. 이 제품은 차량이 이동하는 환경에서도 고감도 수신이 가능하고, 낮은 신호레벨에서도 탁월한 수신성능을 자랑한다. 특히 슬림 형태로 돼있어 책상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고안된 탁상용 디자인이 눈길을 끈다.

이피루스(대표 기성호)는 4.3인치 LCD 크기의 차량용 내비게이션 'F30'을 출시한다. 이 제품은 지상파DMB 수신 기능의 사용 여부를 고객이 선택할 수 있다. 또 'F30'은 내비게이션 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네스티아전자(대표 배병만)는 최근 휴대용 전용 지상파 DMB단말기 DMB SOLO'를 선보였다. 이 제품은 3.5인치

TFT LCD를 탑재했으며, 일반 AA형 건전지 4개로 작동된다. 헤드폰출력단자와 스피커를 내장하고 있어 별도의 외부 스피커가 필요없다. 또 휴대를 위해 제품 두께 20mm를 실현, 국내 최초의 초슬림형 DMB 수신기다.

▲USB형 수신기= 중소기업들이 개발 중인 USB 형태의 수신기 제품은 삼성·LG 등 대기업에서 내놓은 DMB 수신 노트북과 획기적인 가격 차별화를 예고하고 있다.

일반 데스크 탑 컴퓨터 및 노트북과 USB 포트를 연결해 DMB 방송을 수신할 수 있게 하는 DMB용 수신기는 현재 메리테크, 퍼스텔, 엠브리지 등 3개사가 제품을 내놓고 있다. 이들 업체는 10만원대 제품 판매에 들어갔다.

메리테크(대표 장병국)는 USB 외장형 지상파 DMB 수신기인 '모티브 5 (MoTV 5)'를 개발했다.

이 제품은 지상파 DMB는 물론 DAB(Digital Audio Broadcasting)인 디지털 오디오 전용 방송도 수신할 수 있다. 또 별도 전원 어댑터 없이 노트북이나 PC에 연결해 USB 포트를 통한 전원 공급만으로도 지상파 DMB 방송 시청이 가능하다.

특히 국내 인티그런트와 PNP네트웍스의 칩셋을 이용해 RF 모듈 및 베이스밴드 개발에 성공하고 RF 모듈의 소형화 구현 및 수신성능에 있어서는 감도 -100dbm를 구현, 초기 지상파 DMB 송출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 멀티미디어 디지털 기기 제조사들= MP3P·PMP 등 디지털 기기를 생산해온 업체들도 지상파 DMB로 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다. 이미 레인콤은 차세대 디지털 기기 사업으로 DMB 단말기와 휴대용 게임기 등을 점찍어 둔 상태. 코원·아이옵스·엠피오 등도 DMB 단말기를 개발 중이다. ☐

